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영혼을 울리는 클래식 무대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12일 조선대 해오름관 '클래식 신동' 사라 장 리사이틀, 19일 여수 예술마루

'세계적인', '세계최고의' 등의 수식이 붙는 클래식 스타들이 연말을 맞아 광주·전남을 찾는다. 그 주인공은 '천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과 '전체'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먼저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이 12일 오후 7시30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공연을 갖는다.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은 평화의 사도로 불리며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합창단으로 알려져 있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850년 동안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울려 퍼졌던 거룩하고 성스러운 노래들을 재현한다.

1부에서는 13세기 아가펠라 최초의 음악인 '별은 빛나고'를 시작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목소리를 위한 협주곡' 등을 들려준다.

2부는 성탄을 축하하고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캐럴과 'You raise me up' 등의 팝송 그리고 프랑스 민요 등으로 꾸며진다.

공연의 대미는 '오 마리'를 부르며 장

식한다. 이밖에 남·북한의 평화를 상징하는 한국곡들도 선보인다.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은 1907년 창단했으며, 비오 12세 교황이 부여한 별칭 '평화의 사도'로 알려져 있다. 24명의 소년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평화와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다.

이들은 광주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고양, 영월, 제주, 서울 등을 방문해 순회공연을 펼친다. 인터파크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R석 9만9000원, S석 7만7000원, A석 5만5000원, B석 4만4000원, C석 3만3000원.

만 여덟 살의 나이에 뉴욕 필하모닉과의 협연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클래식 신동 사라 장(장영주)이 리사이틀을 갖는다. 19일 오후 7시30분 여수 예술마루 대극장.

이번 공연은 사라 장의 전국 리사이틀 투어로 2012년 이후 7년 만의 내한 공연이다. 대구에서 시작한 투어는 여수를 거쳐 울산, 안양, 천안, 동해, 고양 등으로 이어진다. 피날레 무대는 서울에서 열린다.

레퍼토리는 바르톡의 '루마니아 민속 무곡 Sz.56',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M8', 드보르작의 '로망스 F단조, Op.11, 바치니의 '고블린의 춤 Op.25', 라벨의 '치간느 M.76' 등이다.

피아노 협연자로는 홀리오 엘리잘데가 무대에 오른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는 샌프란시스코 음악원에서 폴 허쉬를 사사했고 뉴욕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로버트 맥도날드 등을 사사,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솔리스트, 실내악 뮤지션, 예술 행정가, 교육자, 큐레이터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줄리어드 음악학교를 졸업한 사라 장은 1990년 여덟살 나이에 거장 주빈 메타가 이끄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세계 무대에 데뷔했다.

이어 뉴욕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뿐만 아니라 핀커스 주커만, 아이작스틴 등 세계 거장들과의 챔버 연주 협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매는 GS칼텍스 예술마루와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사라 장

할 수 있다.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한편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빈소년합창단이 2020년 1월 1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신년음악회를 갖는다.

1498년 오스트리아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궁정교회 성가대로 시작한 빈소년합창단은 4개의 합창단으로 구성됐으며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오스트리아 음악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충장공 김덕령

문화재단, 프로젝트 결과물 공개...9·1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의 의병장인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이야기를 미디어아트로 만난다.

문화재단은 미디어아트 창의랩에 참여한 2개 프로젝트팀, '덕령이-취화월야(대표 신도원)'와 '000空欄 공란'(대표 문창환)'이 올해 개발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덕령이팀의 홀로그래프 국악관현악극 '덕령이-취화월야'는 9일 오후 4시 홀로그래프극장(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에서 상연된다. 미디어아티스트 신도원이 시나리오와 총연출, 펑크파파가 무대연출, 임혜선과 신창우가 영상 작가를 맡았다.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으며 K-Pop 스타 안예은이 작곡과 녹음에 참여해 국악에 현대적 감각을 더했다. 예술과 전통의 독특한 조화를 이루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박무성(광주시립국극단)을 비롯해 전현정, 여차현, 서

영주, 조호석, 김주연 등 많은 지역 예술가들이 출연했다.

두 번째 쇼케이스 '000空欄 공란'은 오는 16일 오후 4시 미디어 338(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서 공개된다. 미디어아티스트 문창환과 이민혁 테크니션이 설계, 제작에 참여했다.

이번 작품을 위해 분사된 포그 위에 프로젝트 영상을 투영해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포그머신을 자체 개발했다. 문창환 작가의 기존 작업과 연결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미디어아트 창의랩은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의 창제작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광주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실주의 조각으로 나타난 '여성'

박민광 '장미빛 인생' 전, 18일까지 롯데갤러리

사실주의 조각의 다양한 면모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롯데갤러리가 박민광 조각가를 초대한 '장미빛 인생'전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러시아에서 리얼리즘 조각을 공부한 박 작가의 첫 개인전이기도 한 이번 전시는 러시아 유학시기 작품과 함께 1998년 귀국 이후 시기부터 현재 조각까지 작품 변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석고로 제작된 유학 시기의 작품은 인체와 인물의 표정, 근육의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은 누드 작업이다. 2000년 초반부터 15여 년간의 작품에서 부각되는 것은 여성의 신체로 이전의 투박함 대신 좀 더 매끄러운 질감이다. 테라코타와 FRP, 대리석 가루 등의 재료를 활용했다.

박 작가는 여성으로서 삶과 자아를 적극적으로 작업에 투영시켜왔으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않았다. 근작에서는 자연의 순리에 맞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장미, 동백 등을 여성의 삶과 병치시켜 단순히 시선의 즐거움을 위한 꽃이 아닌, 생에 대한 갈망과 내적 욕망이 함축된 대상으로서 꽃을 해석한다. 그밖에 새로운 삶을 잉태한 여인의 모습 등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여성성'에 대한 이



'장미의 계절'

아기를 들려준다.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한 박 작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레핀미술아카데미 조소과를 거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마느-위구르 예술대학원 모뉴먼트-장식예술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다. 광주시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국조각가협회원, 전남조각회원, 남도조각가협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나치 희생자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다

광주시향 'GSO TALK...' 음악회, 11일 문예회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의미하는 '홀로코스트'. 이 시대에 오로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에 손에 죽어 나가야 했던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이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GSO TALK, 홀로코스트와 음악, 나치 희생자의 음악'을 개최한다.

음악과 대화가 있는 광주시향의 'TALK 시리즈'의 첫 번째 공연인 이번 무대에서는 파벨 하스(Pavel Haas), 한

스 그라사(Hans Krasa) 등 현대음악가의 곡들을 만날 수 있다.

공연은 홀로코스트에 의해 희생당한 음악가들의 작품을 조명하고 죽음의 경계에서 그들이 왜 마지막까지 음악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이번 음악회는 전남대학교 최유준 교수가 진행 및 연출을 담당하며,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프로파간다와 음악', '나치독일의 일본 프로파간다' 등의 책을 쓴 음악학자 이경분이 대담자로 나선다.



최유준



김혜선



이경빈

레퍼토리는 파벨 하스의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습작'(1943), 한스 크라사의 '실내오케스트라를 위한 서곡', 기데온 클라인의 '현을 위한 파르티타'(1944) 등이다.

소프라노 김혜선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이 부르던 기데온 클라인(Gideon Klein)의 '자장가'와 루디 게겔(Rudi Gyguel)의

'수령의 병사들'을 선보인다. 음악학자이경빈은 "그 당시 수용소 오케스트라가 있어 심포니를 비롯해 왈츠나 유행가, 민속음악, 행진곡, 합창 등 다양한 음악

이 연주됐는데 이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죽음의 공포와 비인간적 삶의 조건 속에서도 음악은 밝은 세계를 향한 희망을 암시했다. 관객들이 이러한 부분을 느끼고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음악회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티켓 1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